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4호 [루게 제24862호] 주제 104(2015)년 3월 25일 (수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백철불굴의 정신력과 백전백승의 실력으로 선군조선을 체육강국으로 빛내이자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에 따라 주체체육발전의 위대한 새시대가 장엄하게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가 성대히 열리게 된다.

은 나라 전체 인민들은 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 공화국기를 펴며 휘날리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떨치고 승리의 금메달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체육인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는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회이다.

주체체육발전이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같이 빛내이며 체육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 온 나라에 더욱 기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체육열풍을 더한층 고조시키며 체육강국건설의 직접적담당자, 주력부대인 체육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우리 나라를 가을에 앞날에 세계적인 체육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우리 당은 조국해방 70돐과 당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전국체육인대회를 소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나리가 체육열기를 쫓고 하고 체육인들이 국제경기장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체육강국건설의 전광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체육은 나라의 존엄과 기상, 국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중대한 국가적사업이다. 평화 시기에 세계의 하늘가에 승리의 국기를 휘날리는 사람들은 체육인들에게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선의 체육인들의 조국을 무어주시고 첫 체육인대회를 소집해주시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체육인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참으로 거대한 공적을 쌓아왔었다.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결코 포상없는 체육강국을 중흥위천하며 금메달로 공화국의 영예를 세계만방에 높이 떨친 체육인들의 빛나는 승리와 위훈들은 주체체육의 자랑한 력사에 뚜렷이 새겨져있다.

체육인들의 거둔 하나하나의 승리와 공적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력사의 만년을 헤치고 투쟁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고 분발시키는 데서 그 무엇보다도 대신할수 없는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였으며 오늘도 우리의 강

성국가건설을 커다란 힘으로 역세계 고구 추동하고있다.

체육은 국가의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온갖 실험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 국제무대에서 공화국기를 휘날린 체육인들을 조국의 존엄과 위엄을 과시한 영웅들이라고 하시며 개신장군처럼 맞이하여 체육영웅으로, 시대의 분보기로 내세워주시던 우리 수령님들의 불멸의 그 업적은 주체체육사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우리의 주체체육은 오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검열경기도 지도해주시며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키워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거듭 무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이 땅에는 체육강국건설을 위한 비약의 활주로가 펼쳐지고 온 나라에는 거세찬 체육열풍이 일어나고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걸어온 자랑찬 력사를 돌이켜보면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를 성대히 가지게 된 우리의 체육인들의 가슴마다에는 지금 선군조선의 체육인이 된 긍지와 자부심이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끓어오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대로 거머쥔 체육강국을 일떠세우어야 할 신념과 용기가 백배천배로 추구쳐오르고있다.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는것으로 보답하는것은 우리 체육인들이 조국과 혁명, 시대앞에 지닌 가장 성스러운 임무이며 선군조선체육인의 마땅한 본분이다.

체육부문의 일꾼들과 모든 체육인들은 백철불굴의 정신력과 백전백승의 실력으로 선군조선을 체육강국으로 빛내이자는 심장의 맹세를 안고 총활기, 총돌격해나사야 한다.

체육선수들은 체육강국건설의 제일결사대, 제일돌격대가 되어야 한다.

지나온 년대들에 우리 체육인들은 조국의 명예를 두어깨에 걸머졌다는 비상한 각오와 그 어떤 강적도 단애에 걸어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주겠다는 필승의 신심을 가지고 경기마다에서 싸워 이겨 재더미에서 부사신마당 일떠세우려 마오진, 주체조선의 이들을 만방에 떨치려고 세계를 놀래우는 체육신화를 창조하였다. 전세계 체육인들이 창조한 공화국의 체육신화를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체육신화로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

백철불굴의 정신력은 조선체육인의 가장

큰 힘이며 모든 승리의 원천이다. 사상을 만능의 무기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체육부문에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우리 식 체육경기원칙과 경기방법을 제시하고 사상전의 가치를 높이 드는 여기에 체육경기에서 승리하는 첫째가는 열쇠가 있다는것을 밝혀주었다.

체육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사상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가 되어야 한다.

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고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명도따라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달랐다 그 긍지가 위되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선군조선의 위대한 힘의 원천을 세계에 과시한 정성욱원수님의 정신세계와 의지로 체육인들 누구나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키워준 어머니당과 조국의 사랑에 반드시 금메달로 보답하겠다는 열렬한 애국충정, 절철한 기대를 안고 기다리는 조국과 인민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겠다는 무한한 책임감, 사생활단으로 싸워 세계앞에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주겠다는 민족자존심과 공격정신이 우리 체육인들이 지녀야 할 조선의 체육정신이다.

모든 체육선수들은 한자매한자매의 국제경기들을 강약과 승패를 거두는 단순한 체육경기이기 전에 조국을 지키고 공화국을 빛내이고 승리하기 위한 결사의 전투로, 금메달로 우리 당을 옹유하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백전백승만을 쫓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내지추수선수들이 되려고 한 당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떤 강림과도 주저없이 맞서 불같이 달리고 승리를 향해 질풍같이 공격하고 또 공격하여 끝없는 우승의 금메달을 안아올린 내지추수선수들의 백철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세계의 하늘가에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고 조국과 인민에게 승리의 금메달을 가져다주는 체육선수들이야말로 평화 시기의 육탄영웅들이고 제일가는 애국자이며 온 나라의 존경을 받을만한 시대의 명칭들이다.

나라사정은 어렵지만 한사람한사람 체육인들을 쑤새배기같이 귀중히 여기며 과학의 작은 운동장을 달릴 때부터 국가를 대표하는 체육선수가 될 때까지 어김없는 사랑을 바쳐 키워온 당과 조국의 은혜를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의 국호와 국가, 국가를 안고 국제무대에 나선 체육인들을 자기의 아들딸들처럼 귀중히 생각하며 승전소식을 기다리는 인민의 눈빛을 지나

까 간직하고 경기장을 달려야 한다.

체육부문의 당조직들은 체육인들을 사상과 정신력의 강자로 역세계 준비시키는데 정치사상의 모든 화력을 총집중하여 그들을 당과 조국,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애국자로 준비시켜야 한다.

체육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들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이 곧 체육인들을 사상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로 준비시키는 사상교양, 사상단련의 과정으로 되게 하며 5대교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체육부문이 당의 사상으로 승수고 불꽃에, 자신을 위한 금메달이 아니라 조국과 혁명을 위한 금메달을 위하여 살며 싸우는 주체혁명의 혁명적인생관이 꼭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백두의 혼연열풍을 더욱 거세하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경기에서의 승리는 훈련장에서 마련된다. 모든 체육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통쾌하게 승리하고 영예의 단상에 올라 중대한 애국가의 주악을 울릴수 있는것은 시상대의 높이이자 조국의 높이이라는 자각을 안고 평시에 땀을 아낌없이 흘리며 이악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응당한 결실이라고 하신 말씀에 뼈에 새기고 훈련하고 훈련하여 또 훈련하여야 한다.

훈련의 하루, 한시간이 조국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격전장에서 1분, 1초로 대가를 치른다는 자각을 가지고 빠른 경기속도로 연속공격전을 틀어쥐고 있는 강한 육체적준비를 다져야 하며 어떤 강림도 이길수 있는 우리 식의 높은 체육기술을 연마하고 기교하고 다양한 주체적체육전법을 소유하여야 한다.

미제와 판가리싸움을 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체육인들사상은 적들의 공격속에서도 목숨을 내내고 하루를 백날, 천날 맞잡고 훈련을 하며 달리고 또 달렸으며 전후에 이온 국제경기들에서 떨친승전으로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렸다.

모든 체육인들과 체육단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실천과도 같은 최악의 조건에서 강도높이, 쉬임없이, 맹렬하게 훈련하고있는 인민군대의 훈련정신, 훈련기풍을 따라배워야 한다.

훈련도 전투로 여기고있는 인민군대의 훈련정신과 훈련기풍, 완벽한 실전능력은 곧 체육인들과 체육단들이 본받아야 할 훈련의 기준이며 목표이다. 모든 체육선수들

은 인민군대 군인들처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새 기록돌과의 불바람, 금메달쟁취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아시아의 패권,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국제경기마다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엄을 만천하에 떨쳐야 한다.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당의 요구대로 훈련도 경기도 철저히 과학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지금 체육과학기술의 발전수준과 높이는 경기에서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나라의 체육과학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릴데 대하여 강조하고있으며 체육과학기술발전의 진로를 확실히 밝혀주었다.

체육부문에서는 과학기술을 증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체육과학기술발전의 전망목표를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실현해나가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체육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기 위한 최첨단과학에 대해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적극 발동하여야 한다.

체육부문의 과학자들은 체육강국건설의 척후병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나라의 체육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가치있고 실효가 크며 세계적인것으로 되는 과학기술과 함께 힘을 집중하며 우리 식의 과학적인 훈련방법과 경기전술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심화시켜 경기활동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감독, 지도교원들은 체육과학기술을 틀어쥐고있는 한결같은 전진할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자질향상의 불바람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체육과학연구사, 지도교원수준과의 협동작전을 치밀하게 짜고 연구에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열풍이 연구하고 심화시켜 경기활동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감독, 지도교원들은 체육과학기술을 틀어쥐고있는 한결같은 전진할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자질향상의 불바람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체육과학연구사, 지도교원수준과의 협동작전을 치밀하게 짜고 연구에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열풍이 연구하고 심화시켜 경기활동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체육강국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자신이 며 온 나라가 체육열풍으로 들끓어야 세계

체육발전의 최첨단을 돌파하는 체육강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대고조전투쟁마다에서 불굴의 정신력으로 더욱 거세차게 폭발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전철을 일떠세우게 된다.

어디서나 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누구나 체육을 하는 사회분위기를 세워야 한다.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대회합동체육대회에는 우리 인민의 높아가는 체육열기와 그 거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이다.

당의 령도밑에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수도 평양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체육시설들이 그뿐히 갖추어졌으며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일수 있는 물결기술적대구가 튼튼히 마련되었다.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들, 각급 체육지도위원회들에서는 체육경기를 자주 조직하여 날로 앙양되고있는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모든 일꾼들이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체육시설과 기자재들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대중체육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하며 자신들부터 앞장서야 한다. 일꾼이라면 누구나 어려울수록 체육열풍을 일으키고 해야 할 일이 방대할수록 체육열기로 고난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체육강국건설투쟁의 용감한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

체육부문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고 국가적인 투쟁을 이기기 말아야 하며 후원단체들의 활동을 강화하여 체육사업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모된 심정으로 체육인들의 생활을 잘 살펴주어 그들이 훈련과 경기들에서 최대의 마력을 내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를 체육경기의 지위에 하루빨리 올려세우자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당과 조국, 인민은 체육부문의 일꾼들과 체육인들이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혁혁한 위훈을 떨치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에서도 체육강국건설의 기수, 선구자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리라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려는 우리의 미더운 체육선수들의 높은 정신력과 체육과학기술의 힘에 안받침되면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전례없는 기적적 창조가 될것이다.

은 나라를 들끓게 하는 체육열풍을 계속 세치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체육강국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자신이 며 온 나라가 체육열풍으로 들끓어야 세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이 24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상징하는 수령영성의 대기념비이며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그들은 혁명령도의 나날 언제나 체육인들속에 계시며 주체체육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체육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김제위원들께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우리 체육인들속에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빛내일 필승의 신념과 배짱을 안겨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그들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림상을 모신 흉에 들어섰다.

백두산대국의 영상이며 주체의 위대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림상을 우러러 그들은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영성홀들에서 그들은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국경선들에서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이 높이 떨쳐지고 체육사업발전의 새로운 전환기가 펼쳐지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삼가 인사사를 드리

었다.

그들은 절세위원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심이 어려웠는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용품들과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체육건설에 쌓아올린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꿰어낸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빛나게 하신로 뜻깊음으로써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에 참담게 이바지할 불타는 열에 내쳐있었다.

태양절 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준비위원회가 17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결성과 관련한 공보에 의하면 준비위원회에는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드미트리 고스넵과 18명의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조직들의 인사들이 망라되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토론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수리아준비위원회가 17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리아아랍사회주의공화국 지역지도부 고등교육부장 파비루스 무사, 서기장으로 수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마히르 쿠르디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출판물과 물품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화합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슬로베니아준비위원회가 18일 마리보시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고르 유리시치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의 기간에 수도와 지방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8일 도이힐란드프랑크에서 진행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토르스텐

쇠비츠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벨라루스준비위원회가 19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벨라루스공산주의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인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스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상설사무위원회 위원장 엘. 슈펠러니코프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 진행

항해남도 의 일군들

항해남도의 드넓은 협동농에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열풍이 세차게 불어오고있다. 항해남도 도급기관의 수백명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에 깃들여있는 도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나가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영농투쟁에 펼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담원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모든 일꾼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의 모든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을 받아안고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맞게 실천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을

적극 벌려 알파중산투쟁에 펼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급기관 일군들은 지난 1월초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을 깊이있게 진행하여 그 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선동자료들과 지원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화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릴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농사차비로 들끓는 웅진군 원사협동농장에 도착한 도급기관 일군들은 먼저 소재지에서 농장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신심드높이 각 작업반 포진들에 달려나갔다. 제9작업반을 비롯하여 과학적인 영농방

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앞장서고 있는 여러 작업반의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간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은 화신식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올해 알파중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일군들은 철참에 포진에서 힘있는 선동연설도 진행하여 협동농장을 전투적분위로 끌어내리려는 의지를 굳게 지켰다. 농장원들에게 나신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올해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해결에서 전변을 가져오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이러 진행된 영농투쟁에서는 높은 실적이 기록되었다. 포진에서 흥겨운 하루일을 마친 일군들은 농장원세대에 도

까지 작업을 하면서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을 정황과 계기에 맞게 능숙하게 진행하고 농장원들과 한집안식구가 된 심정으로 생활상문제들도 적극 풀여주었다.

도급기관 일군들의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올해 기여어 도앞에 맡겨진 알파중산목표를 점령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적는 영광을 지녔다는 집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올해 땅이 꺼져도 농사를 지어 초소에 풍년은 고향의 소식을 꼭 전하자고 약속하였다.

농장의 다른 작업반들에 나간 도인민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도검찰소와 도청무원위원회, 도농민위원회들 비롯한 도급기관의 일군들도 농장원들과 함께 농업용물문제해결을 위한 보막이, 우물과 지하수 등 여러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로 제시된 전후적업무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비단실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공동구호에서 더 많은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이라!

승리자들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린다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이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들어와 자랑찬 국제경기성파로 어머니당에 기쁨을 드린 체육강국건설의 선구자집단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비약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축구선수들은 세계적인 축구명수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우수한 선수들의 기술을 적절히 배우며 자기 특성에 맞는 독특한 개인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약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여자축구선수들은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는 여자축구선수들

제 7차부터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은 당의 품속에서 튼튼히 다진 승기와 용맹을 합치게 떨치며 험악한 경기성파들을 편이 이룩하였다.

제 13차, 제 14차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우승의 영예를 떨쳐 편속 두차례 아시아선수권을 보유하였으며 제 16차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우승의 영예를 떨쳤다. 또한 제 14차, 제 15차,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에서 3차례나 우승하는 자랑찬 전과를 거두었다.

제 3차 세계청년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처음 출전한 선수들은 세계적인 강팀들을 물리치고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다. 세계청년여자축구선수권대회 명수림구장에서도 우리 나라 선수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리의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은 이밖에도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 필승의 신심과 탄력을 더욱 북돋아 주는 이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세세대 여자축구선수들의 다함없는 충정과 백절불굴의 정신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더 많은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이라!

체육경기를 빨치산식으로, 공격적인 전법으로!

시대를 물리는 당의 전투적 소를 받들어 새로운 승리의 목표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리고있는 이들의 가슴마다에 불멸의 찬물이 빛날치고 있다.

2013년 동아시아청년여자축구경기대회에서 단연 우승하여 위대한 승리의 환희를 더해준 여자축구선수들과 감독들에게 백전백승만을 펼치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여자축구선수들이 되라는 뜻깊은 찬물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한다.

필승의 신심에 용솟음치게 하는 신념의 글발을 언제나 심장에 간직하고 오늘도 우리의 미더운 승리자들은 예극의

때를 아끼고 달려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우신 신념의 표를 향하여, 그이께서 가르쳐주신 백전백승의 전법을 들어켜볼 때 제일먼저 되새겨야 할 것은 백절불굴의 정신력이다.

김금옥선수가 비상한 정신력과 투지로 조국의 금메달을 위한 애국의 주름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같은 열기로 들끓는 혼란장은 그야말로 전투장이다. 오늘의 한초한초에 매일의 금메달이 있다는 드림없는 자각이 새로운 혼란성과를 끊임없이 낳고 있다.

책임감독 김광민동무를 비롯한 감독들과 체육과학원자, 체육의료원자들이 창조적 해와 열정을 합치며 지난 시기의 성과에 토대하여 과학적으로 짜고들고있는 훈련지도가 선수들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다.

여자축구선수들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기 위해 국가종합체육단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바쳐가는 열정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의 양양된 기세는 체육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는 더욱 빛나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글 및 사진 지혁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체육인들에게 있어서 당의 믿음을 받는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현대미를 뽐내며 우뚝 솟아있는 체육인살림집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마냥 즐거웠다. 체육인들의 긍지와 보람이 넘쳐나는 행복의 보금자리에 보람의 열의 또한 끝이 없으리라는 생각에 발걸음은 절로 빨라졌다.

우리는 먼저 4층 2호에서 사는 력기선수 김은국동무의 집을 찾았다. 일요일이어서인지 열정적들과 김은국선수의 동무도 와있었다. 훌륭히 꾸려진 여러칸의 넓은 살림방들은 매우 이채로웠다. 큰방의 벽중심에 정중히 모셔져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 우리를 영광의 그날에 이끌었다.

우리에게 자리를 권하며 김은국선수의 어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우리 은국이 청소년체육학교에서 처음 력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성공하겠다는 하는 우려도 있었습다. 그런데 아이들이 국제경기에서 매년 순위권에 드는것을 보고 신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4.25체육단 선수로 된 이후 처음으로 참

보람의 마음 넘치는 행복의 보금자리

체육인 살림집을 찾아서

가한 국제경기에서 은국이 단번에 금메달을 쟁취하리라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후 여러 국제경기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아이들을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 아이를 이렇게 훌륭히 키워준 당의 고마움에 무엇으로 다 보답할것인가 하는 생각이 산같이 커집니다.》

감격에 젖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동갑이러는듯 머리를 끄덕이던 김은국선수가 말을 이었다.

《저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백두의 당력과 승기로 용감히 싸워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누리에 더욱 빛내이는데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하겠습니다.》

세계력기계를 들었던날은 김정일상수상자이며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인 은국선수의 탄탄한 걸음은 우리의 마음도 세계적 격동시켰다.

김은국선수의 집을 나선 우리는 제 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와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 등에서 김정일상수와 함께 편이 우승하여 온 나라에 기쁨을 더해준 김혁봉선수가

아직 여자축구경기대회에서 1등,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에서 1등을 쟁취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제17차 동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에서도 단연 우승하여 조선여자축구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 필승의 신심과 탄력을 더욱 북돋아 주는 이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세세대 여자축구선수들의 다함없는 충정과 백절불굴의 정신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더 많은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이라!

체육경기를 빨치산으로, 공격적인 전법으로!

시대를 물리는 당의 전투적 소를 받들어 새로운 승리의 목표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리고있는 이들의 가슴마다에 불멸의 찬물이 빛날치고 있다.

2013년 동아시아청년여자축구경기대회에서 단연 우승하여 위대한 승리의 환희를 더해준 여자축구선수들과 감독들에게 백전백승만을 펼치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여자축구선수들이 되라는 뜻깊은 찬물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한다.

필승의 신심에 용솟음치게 하는 신념의 글발을 언제나 심장에 간직하고 오늘도 우리의 미더운 승리자들은 예극의

수이 마음만이 아니었다. 미더운 체육인들의 가정마다에 당이 안겨준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대한 고마움의 정이 한껏 흘러넘쳤으며 그와 더불어 보람의 열망 또한 뜨거웠다.

김정선수가 살고있는 7층 2호에서도, 좋은정선수가 사는 16층 3호에서도...

어느덧 즐거운 휴식일의 저녁 시간이 되면서 집집마다 노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메아리는 오늘의 행복을 안겨준 어머니당에 드리는 고마움의 송가라, 세계의 하늘에 예극가를 더욱 긍지높이 울려갈 맹세의 노래마냥 들을수록 가슴설레이게 하였다. 우리는 주제조선의 체육인들이 이룩하게 될 새로운 성과와 그로 하여 더욱 앞당겨질 체육강국의 메일을 그려보면서 체육인살림집을 떠났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인민체육인 김은국선수의 가정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소유자로

2013년에 진행된 제 14차 아시아마라손선수권대회 여자마라손경기를 비롯하여 여러차례의 국제마라손경기에서 영예의 1등을 쟁취한 김금옥선수의 험악한 성과를 들어켜볼 때 제일먼저 되새겨야 할 것은 백절불굴의 정신력이다.

김금옥선수가 비상한 정신력과 투지로 조국의 금메달을 위한 애국의 주름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같은 열기로 들끓는 혼란장은 그야말로 전투장이다. 오늘의 한초한초에 매일의 금메달이 있다는 드림없는 자각이 새로운 혼란성과를 끊임없이 낳고 있다.

책임감독 김광민동무를 비롯한 감독들과 체육과학원자, 체육의료원자들이 창조적 해와 열정을 합치며 지난 시기의 성과에 토대하여 과학적으로 짜고들고있는 훈련지도가 선수들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다.

여자축구선수들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기 위해 국가종합체육단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바쳐가는 열정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의 양양된 기세는 체육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는 더욱 빛나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글 및 사진 지혁철

패권자들을 키워낸 훌륭한 감독들

통남산체육단 레스링책임감독 인민체육인 리창중동무는 2중세계레스링선수권보유자 양영일선수를 비롯하여 세계와 아시아패권자들을 키워낸 유능한 감독이다.

일본을 가까이하는 나이에 조국을 빛내이는 레스링강자들을 키워내는 사업에 바쳐가는 그의 열정은 대단하다. 지난 기간 선수들에 대한 교수훈련지도에 실속있게 변화시켜온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레스링선수들에게 확

수십년 세월을 하루같이

고히 정통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어느 하루도 중단하지 않았으며 조선사람의 체질특성에 맞고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기술과 전술을 완성하기 위해 불타는 정열을 바치었다.

리창중동무의 이런 불같은 애국의 마음에 받들려 애정일선수는 기술적완성을 목표로 다져졌으며 2009년과 2014년 세계레스링선수권대회 남자자유형레스링경기에서 각각 우승하여 2중세계레스링선수권보유자로 위훈떨칠수 있었다. 이나날 인민체육인의 영예를 지니도록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사랑은 리창중동무가 지난 수십년간 그려왔던 것처럼 오늘날 왕성한 투지와 불타는 정열에 넘쳐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내달려 가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수년대회 선수권보유자 자랑다. 또한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 출전하여 추켜올리기에 특기를 살려 자기 몸무게의 3배가 넘는 170kg을 손쉽게 들어올림으로써 세계 새 기록을 수립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후 진행된 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2중세계선수권을 보유하였다.

본사기자 전철호

래권도모국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며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주는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선민족의 정통무도 태권도도 지난 수십년간 훌륭한 개화발전하였으며 그 나날 승리의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자랑찬 성과들이 수없이 기록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래권도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무술의 한 형식이며 우리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는 좋은 체육종목입니다.》

당의 품속에서 재능의 나배를 활짝 펼쳐 높은 태권도기술을 소유한 우리의 태권도선수들은 제 5차부터 제 18차에 이르는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매년 나라별종합순위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으로써 태권도모국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떨치었다. 이와 함께 7차례의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11차례의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편이 나라

별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고 수많은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여러차례의 국제무도경기대회들에서 평시에 편만 한 훌륭한 기술을 발휘하여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림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결과 주제조선의 미더운 태권도선수들속에서 2명의 로력영웅을 비롯하여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들이 수없이 배출되었다.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국제무대에서 승리를 떨친 많은 태권도선수들이 오늘은 일군으로, 감독으로 자라나 나라의 태권도발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더욱 힘있게 내달리고 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승승장구의 한길로만 내달려온 우리의 태권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더 높은 경지로 솟구치며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들어와서도

자랑찬 승리의 화폭들을 펼치고 있다.

2013년에 진행된 제 1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지난해의 제 7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만도 우리의 태권도선수들은 무비의 정신력과 완강한 투지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기술과 전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전례없는 경기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태권도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당이 밝혀준대로 조선사람의 특성에 맞는 우리 식의 경기전법을 틀어쥐고 나갈 때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을 더욱 굳게 다져주었다.

지금 우리의 미더운 태권도선수들은 필승의 신심드높이 혼란장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려가고있다. 청춘의 심장에 끓어넘치는 신심과 애국적 열정은 조국해방 일흔흔과 당장전 일흔흔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더욱 빛내이며 새로운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림 것이다.

본사기자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린 우리 체육인들



조국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친 여자축구선수들



김금옥 선수



홍은정 선수



장은희 선수



정학진 선수



설경 선수



김정, 김혁봉 선수들



엄윤철 선수



김지성 선수

미국은 《천안》 호침몰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대조선침략 책동에 악용한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인민군관문점대표부고발장

미국은 모략과 남조의 상습범이며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의 주체는 확실히다.

은 거머와 세계를 격노케 한 《천안》 호침몰사건을 조작하고 대조선 침략책동에 악용한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천안》 호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난 5년간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가장 흉악한 침략자, 도발자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흑백을 전도하고 현실을 기만하기 위해 《천안》 호

침몰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겨 또 한차례의 대결광풍을 일으키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합리화해 보려고 여러차례 돌아대고있다.

역사는 공정한하다.

세월이 흐르다고 하여 고침수도 은폐할수도 없는것이 력사이다.

조선인민군 관문점대표부는 《천안》 호사건을 조작하고 대조선적대정책에 악용한 미국의 천안호대침몰 범죄적책임을 만천하에 폭로대판하기 위하여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했다사실, 남조선잠수부가 미군잠수함이 침몰된 구역에서 작업하다가 영문모를 죽음을 당하였다는 사실 등이 편이 공개되었다.

《북어퇴공격》설에 대해 의혹을 품거나 다른 견해를 제기한 과학자, 전문가들은 《천안》 호침몰의 과학적원인을 미군잠수함파괴의 충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남조선에서 제작영역되어 만사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기록영화 《천안》 합프로젝트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전면반박하면서 《천안》 호가 미군잠수함파괴의 충돌로 침몰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면에서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고 한다.

2014년 11월 남조선 경성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황수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원인 머로 카메라스라는 공동연구하여 발표한 논문 《무엇이 정답으로 《천안》 호침몰을 일으켰나?》에서 《천안》 호는 길이 113m정도의 미군잠수함과 충돌한 결과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사건당시 백영도에서 기록된 지진파의 주파수스펙트럼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하의 공진현상과 학적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천안》 호는 침몰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고 함선에서 유실된 유도탄의 발진위치는 폭침현상을 부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며 함선의 공진현상은 잠수함충돌론으로만 설명된다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득력있게 주장하였다.

《천안》 호사건을 조작한 범죄적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해 미국은 온갖 비열한 책동에 나서지 않았다.

특히 남조선피괴들을 내세워 《북조선외의 다른 용의자가 거의 없다.》고 《천안》 호침몰원인 북조선의 어뢰공격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혐의자인것이 기정사실인것처럼 늘어놓았다.

《북소행》설을 남조하는에서 미국이 제일 많은 품을 넣은것은 바로 《천안》 호침몰원인을 규명하는 사건조사였다.

《천안》 호사건을 조작한 이후 벌어진 미국의 책동은 히스테리적광기를 판상케 하였다.

《천안》 호가 침몰되자 즉시 대조선침략전쟁소동에 광분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갔다.

2010년 5월 20일 터무니없는 남조선의 《천안》 호가 침몰되자 즉시 대조선침략전쟁소동에 광분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갔다.

인 지지》를 보낸다고 하였는 하던 리명박역도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되자 지구 비호부등해나갔다.

백악관과 미국방성의 수급사관들이 때없이 공개석상에 머리를 내리고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목에 피대를 세웠으며 유엔무대까지 우리를 증상모해하는 판무장으로 만들어놓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이 진실은 은폐하고 모략적인 남조선에 타당성을 부여해보려고 책동한 면모의 일면을 지니지 않았다.

1. 미국은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겨 《천안》 호사건을 조작한 주범

《천안》 호침몰사건은 절두절미 미국의 치밀한 정치군사적책략에서 비롯된 고안되고 실행된 모략극, 남조극이다.

들이커보면 사건발생기 우리 공화국은 강위력한 불태의 자주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세상에 떨치며 눈부시게 발전하고있었다.

반면에 천미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광분하던 리명박악당은 심각한 정치적위기와 경제적침체에 직면해있었다.

대구기 전사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 계기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침투를 요구하는 민심은 미국의 식민주의자를 밀부려대 뒤흔들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철저한 천미국과도 공인되어있던 일본까지 미국의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전환하며 《아시아의 일본》을 만들겠다는 야심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대미일변도에서 벗어나보려고 부산을 피뢰고있었다.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방임해두는 경우 미국은 남조선에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전개한 침략무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예상치 않은 곤경에 빠질수 있었다.

미국 AP통신과 남조선 《KBS》 방송을 비롯하여 미국과 남조선의 언론매체들도 백영도내근해에서 2척의 구축함을 포함한 미제침략군함들의 참가하여 남조선-미국연합함훈련이 진행되고있었다는것, 《천안》 호침몰장소와 거의 동일한 곳에서 미군잠수함도 침몰했다는 사실을 미국과 남조선 《정부》가 극비로 철저히 은폐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이외에도 침몰사건이 발생한 즉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와 남조선강경미제침략군 사령관이 황금기 사교대역에 나와 축적공문을 벌려놓고 《천안》 호의 잔해수색을 명분으로 동원된 미군잠수부들이 사고구역이 아니라 저들의 잠수함이 침몰된 구역에서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돌아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2. 미국은 《천안》 호사건의 공정한 진상 조사를 한사코 가로막은 악랄한 휘방군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는 다음과 같은 통지문을 보냈다.

《이미 오해에 초점을 유영기우던 군사작전위협을 내세워 권능에도 맞지 않는 그 무슨 조사를 진행했다는 자책기 어불성설이며 그 결과를 조미정국 여파당락에 올려놓는다는것은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는 처사입니다.

귀국이 말하는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결과파괴는 남조와 모략으로 일관된 피괴들의 합동조작결과를 그대로 대변한것으로 뭉텅이이라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 귀국은 대이상 유엔군사당부의 명의로 북남관계문제를 기어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귀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면 할수록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의혹은 더욱 커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측은 우리측의 논리정연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진행하자고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그 진속이 무엇인지 환히 꿰뚫고있었지만 우리는 사건진상을 솔바로 해명하려는 일념으로부터 판문점에서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을 가졌으며 그것은 미국의 압력에 따라 남조선피괴들이 《천안》 호침몰사건이 정전협정과 관련된 흔적이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우리의 현실성있는 제안을 무작정 거부하고있는 조언에서 형식과 방식에 구속없이 없이 공정한 사건조사를 실현시켜보려는 의도에서였다.

우리측은 《천안》 호사건과 관련하여 개최된 통지문은 솔바로 해명하려는 일념으로부터 판문점에서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진행하자고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그 진속이 무엇인지 환히 꿰뚫고있었지만 우리는 사건진상을 솔바로 해명하려는 일념으로부터 판문점에서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을 가졌으며 그것은 미국의 압력에 따라 남조선피괴들이 《천안》 호침몰사건이 정전협정과 관련된 흔적이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우리의 현실성있는 제안을 무작정 거부하고있는 조언에서 형식과 방식에 구속없이 없이 공정한 사건조사를 실현시켜보려는 의도에서였다.

우리측은 《천안》 호사건과 관련하여 개최된 통지문은 솔바로 해명하려는 일념으로부터 판문점에서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진행하자고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귀국

벨라루스와 쿠바를 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귀국

벨라루스와 쿠바를 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24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인솔형 외무성 부상과 헤르만 에르민 페르스 부 비제스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마니바드라한 간블드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과의 공동식수진행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과의 공동식수진행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과의 공동식수진행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을 거부하고 모략극을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인성 시켜보려는 교활한 술책들이 《천안》 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조미군부대회담회담에서 우리측에 설명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어왔다.

조미군부대회담회담을 개최해놓고 저들이 꾸며낸 《조사결과》라는것을 먼저 불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인성했다는 통지문을 쓰자는 검은 술책이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 군대와

《천안》 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헌정의 의혹 없이 끝까지 파헤쳐 해명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침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온 5년전 그때부터 공정한 진상해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나섰으며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진상해명을 가로막기 위해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국방위원회결정판과 판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 등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면거부해나서도록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긴것도 미국이다.

피괴들이 우리의 편승적인 공세에 부딪쳐 수세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마후조종자의 가면 벗어던지고 전면에서 사건조사에 제방을 높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례 걸쳐 진행된 《천안》 호사건해명을 위한 판문점 조미군부대회담실무접촉 전과정이 립중해주고있다.

2010년 6월 26일 미군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건해명을 위한 북남고

